



## 디모데가 받은 가정교육

디모데후서 1:3-5를 중심으로

성인경

### 1. 한슬이와 한결이 이야기

몇 년 전에 라브리에 한슬이와 한결이라는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는 모래 장난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다섯 살 백이 한슬이가 모래 떡을 만들어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듯이 동생에게 사랑을 했습니다.

“와 모래 떡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그 때 두 살 백이 한결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누나에게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나 나도 하나 만들어 줘. 나도 먹고 싶어.”

한슬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래 떡을 큼직하게 하나를 만들어 건네주었습니다. 한결이는 그걸 냉큼 받아먹었습니다. 한 입 가득히 넣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입맛을 쭉뺀 거러면서도 절대로 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물었습니다.

“모래 떡이 맛있어?”

동생의 대답입니다.

“응”

“나한테 좀 남겨줄래?”

“아니.”

한결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마지막 남은 것까지 입에 틀어넣었습니다. 한슬이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결이가 모래를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슬이가 동생을 속였기 때문일까요?

그 날 한슬이와 한결이는 모래떡 사건을 어린 시절의 장난과 추억으로 간직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한슬이는 별로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두 번 다시 모래 떡을 먹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한결이는 맛있다고 아무 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 유치원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 드는 일이겠죠? 그러나 라브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그래서 수도원 출신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도 “가정은 영성훈련의 최고학교이다(Home is the best spiritual training center).”라고 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회사나 학교와는 다르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유동적인 환경이고, 가정은 바깥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진짜 모습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이며, 가정은 생활 속에서 기도과 말씀 그리고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최고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까?

## 2.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추천하는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Timothy, TIM)라는 인물은 바울 사도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어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므로 혼혈아 혹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2)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요 에베소교회 목사였습니다.(빌립보서 1:1, 데살로니가전서 1:1, 데살로니가후서 1:1, 빌립보서 2:19) 3)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 나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렸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3:2, 빌레몬 1:1, 히브리서 13:23) 4)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디모데전서 1:2, 디모데전서 1:18, 디모데후서 1:2, 빌립보서 2:22)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디모데후서 1:3-5) 이 말씀을 보면, 1)디모데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2)디모데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3)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디모데는 전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혹은 내외부적으로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겠지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그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전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소리를 들을 자식들을 키워놓았습니까? 이상의 본문을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런 디모데는 어떻게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일까요?

## 3. 디모데가 가정에서 받은 영성훈련의 내용이 무엇인가?

(1) 디모데는 가정에서 깨끗한 양심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청결한 양심(pure heart)을 가진 사람”(3)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뜻일까요? “청결”이란 말이 신약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청결한 마음’은 어디에 충성을 다할지 갈등하지 않고, 관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동기가 뒤죽박죽으로 엇갈리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디모테가 생각날 때마다 매번 어김없이 떠오르는 그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청결한 양심을 가진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디모테가 살아온 배경을 보면 그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은 천성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라고 일한 시대는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가정은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디모테가 청결한 양심을 가진 것은 천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이나 당시의 관습보다도 청결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1)오래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불교나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테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개종은 모든 기득권과 안정적인 종교생활을 포기하더라도, 양심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믿던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가정이고, 유대인 어머니가 헬라인 그리스 남편을 만나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으므로, 디모테가 처음에는 유대교적 신앙생활을 배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Lock, Calvin) 그러나 ‘로이스’가 ‘유니게’를 헬라인 그리스 사람과 결혼시킨 것으로 보아서(사도행전 16:1), 로이스가 먼저 개종한 후에 딸을 결혼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디모테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 중에 종교의 자유는 그 첫 번째입니다.

2)국제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국제결혼을 찬성하십니까? 요즘같이 이혼이 많은 세상에서는 보통 결혼도 대단한 모험이지만,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혁명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머니로부터 “사랑은 국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과란 눈이나 검정색 피부를 가진 사람과 국제결혼도 가능하다.”고 가르치십니까? 이것은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결혼의 자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니게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국제결혼을 통해 디모테를 낳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약 유대교 신자들이라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어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유니게’를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 여자”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도행전 16:1). “믿는”이라는 표현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사도행전 16:14,15). 물론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헬라인과 국제 결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3)경우에 따라서는 포도주를 한 잔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포도주를 한 잔씩 해라.”는 말은 술주정뱅이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아마 디모데 목사는 비위가 약하고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같은데,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디모데전서 5:23)고 부탁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포도주도 한 잔씩 했지만 양심에 그리끼지 않았습니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잠 못 자는 병으로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었는데, 신실한 한 집 사님이 걱정하시며 권면하시기를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것보다 맥주를 좀 마시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고 하시기에 한 번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맛있는 맥주가 없었는지 우쭈 맛 같아서 금방 포기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도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양심의 자유를 알고 권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양심을 가지도록 훈련 받은 것입니다.

(2)디모데는 가정에서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목사님이었는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정서적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말해 줍니다. 1)디모데 목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으며(네 눈물을 생각하고, Recalling your tears, v.3) 2)디모데 목사는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 주는 사람이었는데, “내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may be filled with joy, v.3)”는 말씀이 그것이며, 3)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디모데가 얼마나 감성이 풍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그는 잘 울고 잘 웃는 천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해 주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거나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마음이 따뜻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된 바울사도의 개인지도를 많은 받은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디모데후서 4:9)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디모데가 가슴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말이 사납고 가슴이 얼음장 같은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사자 발톱에 찢겨 죽어 가면서 마음이 따뜻한 디모데의 손을 잡고 운명하고 싶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제 상상의 근거는 바울 사도의 계속된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디모데후서 4:13)고 했습니다. 마치 친 아들에게 말하듯이, 추운 감옥에서 입을 “겹옷 혹은 솜옷”을 가져오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옷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헌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

합니다. 그리고 “가죽 성경책”도 같이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새 옷을 한 벌 구해 오너라.”고 부탁하지 않는 검소하고 소탈한 “그 선생의 그 제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상상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6:18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디모데전서 6:18)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을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3) 디모데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배신과 위약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약속과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할 동안에 디모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사도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를 인간적으로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과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디모데전서 1:19,20)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디모데후서 4:9-15)

이 점에 있어서 바울 사도와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초신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나, 분명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의 지성과 스파르타인의 용기, 그리고 영화 ‘300’이나 ‘트로이 목마’에서 보았듯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사나이들의 의리’ 등을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가정은 언제 누가 아플지, 언제 누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매우 유동적 환경입니다. 회사나 학교는 대부분 정해진 일들을 추진되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가정과 교회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새로운 일들이 계속 터지는 곳입니다. 아침에는 작은 애가 아프더니 저녁에는 큰 애가 아프고, 아침에는 부부가 싸웠는데 저녁에는 자식들과 싸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속에서 동정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빛어진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답슨이 이야기 했듯이, “최선의 환경에서도 인생은, (특히 가족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 질병과 고통, 그리고 고독을 안겨준다”(James Dobson)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마귀가 까부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영성훈련을 하기 좋습니다. 신학교나 기도원보다 영성훈련이 더 잘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M. Luther)는 수도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가정에서 배우고 난 후에 “가정은 영성훈련의 최고학교이다.”라고 했지 않을까요?

(3) 디모데는 가정에서 바른 신앙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테를 칭찬하면서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4)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sincere faith)이란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뉘포크리투’는 문자적으로 ‘위선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디모테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품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걸치레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테후서 3:5에서 말했듯이,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판단은 하루 이틀 동안에 내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겪어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여기에 “너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말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지내며 평소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테가 보낸 편지나 목회 사역 등 다른 일을 통해서 디모테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다.”(Bengel, Earle, Guthrie)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와 같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여기에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디모테후서 1:3, 5)는 말은 디모테와 바울 자신의 신앙이 이단 아니라 전통 이스라엘 유대 조상들이 믿던 유대교 하나님에게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학적으로 디모테는 전적으로 믿을만한 바른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에 대해 주석하기를, “유대교 집안에서 성장한 디모테도 자기와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Scott)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의 논지를 볼 때, 디모테의 신앙이 유대교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적 신앙을 전수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Hendriksen, Guthrie)고 했습니다.

대 신학자요, 원로 장로인 바울 사도가 어린 디모테 목사에게 “너는 나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다.”고 언급한 것은 대단한 찬사요, 신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모테는 신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관이 같은 사람” 혹은 “신학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성경 해석이 바르고 영적 색깔이 성경적이고 똑 바른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가정에서 어른들로부터 성경을 바로 배운 탓입니다.

2)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르쳐 준 성경공부에서 얻은 것입니다. 디모테후서 3:14-17을 보면 디모테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 교육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듯하고 온전한 사람을 키우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훌륭한 종교서적이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성경을 참 진리라고 믿는가?(true truth), 2)성경을 명제적 진리라고 믿는가?(propositional truth), 3)성경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가?(absolute truth), 4)성경을 현실적 진리라고 믿는가?(realistic truth), 5)성경을 인식 가능한 진리라고 믿습니까?(knowable truth)

3)디모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13-15)

디모데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메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녀탄생 이야기나 온갖 이적 기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의 유일하게 자유주의와 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레샴 매첸(Grasham Machen)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프린스턴대학교 신학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여 나와서 웨스트민스트신학교를 세워 오늘날의 미국 복음주의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메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벌써 시시한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믿었던 신조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는 없이 가슴만 뜨거운 청년은 가는데 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초가 확실한 청년은 가는데 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온전한 인간교육은 가정의 특권입니다.

#### 4. 맺는 말씀

바울사도가 여기에서 “확신하노라”고 한 이 말의 헬라어 ‘페페이스마이’는 ‘페이도’, ‘확신시키다’, ‘설득하다’의 완료 수동 직설법인데, ‘나는 확신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였을 때 사용하던 관용구로서”(Simpson),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 바울이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내가 전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인 가정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집집마다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았던가, 자기 부부 관계가 별거상태라던가,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던가,

자식들이 문제아라던가, 탈세를 얼마나 많이 했다던가, 남편과 아내 중에 바람을 피우던가, 자식 중에 결혼하기도 전인데 임신을 했던가, 가족 중에 술 중독자가 있거나, 등등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밀한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가족들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특히 가정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모르지만 매일 같이 사는 가족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짜나 위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회사, 학교, 기도원에서는 진짜 모습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집 밖에서는 언제나 점잖고 얌전하고 멋있게 산 사람일수록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집 밖에서 는 그렇게도 예의바르고 착하다고 하는데 집 안에서는 말썽꾸러기에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맙시다. 복잡한 가정의 문제와 죄악 중에 다듬어진 영성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즉 디모테와 같은 일꾼을 키울 수 있습니다.